

출입문 닫고 나오자 악취·소음 순식간에 사라져

국제행사 대비 '청결-광주 프로젝트' 市, 청소인력·장비 보강 등 7개 분야 21개 과제 추진

세종시 RDF(가연성폐기물연료화) 시설 가보니

800m 인근 주민 1년간 민원 한건도 없어 폐기물로 만든 연료 t당 4만1000원 판매

“공기는 깨끗한 것 같은데...”

지난 주 방문한 세종특별자치시 가연성폐기물연료화(RDF·Refuse Derived Fuel) 시설은 생각보다 훨씬 깨끗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씨여서 악취가 심할 것이라던 걱정과는 달리 특별한 냄새는 나지 않았다. 온갖 폐기물을 모아 잘게 부순 뒤 원통 모양 고체연료를 만든다기에 각종 기계가 복잡하게 설치된 ‘공장’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 본 RDF시설은 사방이 딱 막힌 말끔한 물류창고로 연상케 했다.

가동되고 있는 시설 내부에서도 기계음은 생각만큼 요란하지 않고 견딜만한 수준이었다.

국비와 시비 등 2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8월 가동되기 시작한 세종시RDF 시설은 하루 130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세종시의 거주인구가 적어 아직까진 하루 평균 20여만 처리되고 있는 상태다. 세종시는 아직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아 음식물쓰레기가 함께 반입되는 탓인지 기계가 작동되는 시설 내부에는 숨을 쉬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악취가 진동했다. 하지만 시설 밖으로 나와 출입문을 닫자마자, 그토록 지독했던 냄새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침출수 역시 따로 처리시설이 있는데, 폐기물이 반입되면 하루 안에 즉시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시설 측의 설명이었다.

광주시가 남구 양과동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RDF시설이 주민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인 만큼, 타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RDF시설의 문제점을 찾는데 초점을 맞췄지만 일부는 예상과 달랐다.

소음도 별로 없었다. 세종시 외곽 2만㎡의 부지에 자리 잡은 3층 규모의 이 RDF시설은 위낙 밀폐가 잘 되어 서인지 시설 바깥벽 바로 근처에서 서 있어도 조그맣게 달각거리는 것 외에 별다른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폐기물을 들어 옮기는 크레인, 폐기물을 잘게 부수는 파쇄기, 무게 및 크기 선별기, 운반용 트레일러, 건조기, 연료 성형기, 연료 포장기 등이 죽 늘어서

가 깊어 5cm 지름 2cm 크기의 원기둥 모양 RDF로 변신한다. 만들어진 RDF는 1kg당 4500kcal의 열량을 발생시키며, 1t당 4만1000원에 발전소 등에 판매된다. 현재 화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석탄의 경우 1kg당 4800kcal의 열량을 내면서도 가격은 1kg당 10만~15만원으로 RDF의 2~3배에 이른다. 폐기물 처리비용이 훨씬 더 많은 편 폐기물 처리방법이나 시설 운영 측면에서 세종시의 시설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세종시 가림동에 위치한 가연성폐기물연료화(RDF)시설 내부. 3층 높이의 밀폐된 건물 내부에 크레인과 파쇄기, 크기 선별기, 운반용 트레일러, 건조기 등이 들어서 있다. 오른쪽은 RDF시설에서 만들어진 엄지손가락 크기의 펠릿.



내에서 운영되거나 설계중인 20개 RDF시설의 장단점을 분석, 장점만을 기본설계에 반영한 것"이라며 "특히, 세계최고 수준인 독일 RDF시설 운영에 참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악취나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전국 최고의 환경친화적 시설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시는 앞으로 개최될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해 광주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개최도시 위상에 걸맞는 민주 시민의식 함양을 선도하기 위해 '2013 청결-광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가 광주공동체의 역량을 결집해 중점 추진하는 '청결-광주'프로젝트는 7개 분야 21개 과제로 운영된다. 7개 분야는 ▲청소인력 보강 대책 ▲청소장비 보강 대책 ▲청소환경 개선 대책 ▲국제행사 대비 시가지 청결 대책 ▲시민 자율참여 대책 ▲환경미화원·청소활동가 사기진작 대책 ▲시민 홍보 대책 등이다.

시는 세부 실행과제로 가로환경미화원 결원 발생시 조속히 충원하고, 1인당 담당구역을 줄이기 위해 인력 증원을 중장기적으로 자치구에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노인일자리아사·

공공근로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 인력을 청소취약지에 집중 투입하고,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을 중점 관리하기 위해 '공무원 취약지 책임진담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가지 청결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노면 청소차량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쓰레기 취약지역 밀착관리를 위해 감시카메라 증설 등 장비 현대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꽃박스와 화단을 조성해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시가지 쓰레기통을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게 공공디자인을 적용해 설치키로 했다. 특히, 국제행사의 메카인 DJ센터를 'Zero-Waste 시범구역'으로 선정해 품격 높은 국제도시 수준의 청결을 유지할 방침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2659일...광주지하철 최장 무재해 인증

광주지하철이 전국 지하철 운영기관 중 '최장기간 재해 없는 사업장'으로 인증받았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006년 1월 18일부터 2013년 3월 25일까지 총 2659일간 무재해 기록 달성을 인정받아, 30일 안전보안공단으로부터 참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악취나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전국 최고의 환경친화적 시설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초로 '무재해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환경을 체크하는 '안전과수준제'를 도입하는 등 차별화된 불안전 요인 사전 제거 작업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한 점이 큰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호준 사장은 "무재해·무사고·무지연의 '3무(無) 지하철' 구현을 위해 애써온 결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전국 최고의 무재해 지하철답게 더욱 안전한 경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힐링가든센터' 도심속 휴식 공간 인기

남구 대촌·양과동에 개장 이틀간 방문객 600여명



지난 주말 광주힐링가든센터 이용객들이 시설 내 정원을 거닐고 있다. 힐링가든의 이용료는 무료며 연중 운영된다. /나영주기자 mjna@

광주시 남구가 지난 25일 대촌·양과동에 개장한 '광주힐링가든센터(이하 힐링가든)'가 '도심속 휴식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29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도심속 치유 공간으로 조성된 힐링가든은 830㎡ 규모의 대형 유리온실 건축물로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며, 개장 후 첫 주말인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이곳을 찾은 방문객이 600여명에 달할 만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힐링가든은 각종 식물과 함께 벤

치, 휴식 공간이 구비된 '휴게 정원'을 비롯해 이색적인 꽃들을 만나볼 수 있는 다육식물 체험공간, 장미가든, 닥터피쉬 체험장 등 다양한 체험과 교육 시설이 마련돼 가족단위 방문객

의 호응을 얻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빛과음공예창작촌 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관광체험코스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세얼굴

"4대 사회악 근절에 모든 역량 집중"

오윤수 광주동부경찰서장



"4대 악 근절에 역량 집중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치안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제66대 광주동부경찰서장으로 취임한 오윤수(56) 총경은 29일, 공정한 법집행과 4대 악 근절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치안행정을 펼치겠다"며 "수요자 중심의 치안, 시민

들과 함께하는 치안을 펼쳐 행복한 삶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조직 내에서 정보 통으로 불리는 오 서장은 간부후보 33기로 경찰에 입문한 뒤 전남지방경찰청 교육계장·생활안전계장·정보계장과 광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정보과장 등을 역임했다.

"주민 눈높이 맞는 치안행정에 최선"

박석일 광주북부경찰서장



"지역 주민과 화합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제27대 광주북부경찰서장으로 취임한 박석일(48) 총경은 29일 주민 공감 치안행정을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주민의 요구와 필요 사항을 한 발 앞서 읽어내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4대 악 근절은 물론 주민이 공감하는 치안행정을

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직원과 주민들에게 직접 소통하는 경찰서장으로 유명한 박 서장은 해남 출신으로, 경찰대학(3기)을 졸업하고 지난 1983년 경위로 임관한 뒤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해남서장·광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은

전라남도의 희망입니다.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지역 전남, 국립목포대학교가 꿈을 키웁니다.

<http://sign.mokpo.ac.kr>

전라남도 의과대학유치 서명운동,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